

연필에 누가 사는지... 대화 단절

신혼 맞벌이 鄭(30) 金(30) 부부는 며칠전 아침 출근길에 연필주머니를 내리다 뒤늦게 따라온 시선을 느꼈다.

비자루를든 위층 아주머니가 층계를 쓸다 말고 그다지 급지 않은 눈길로 두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걸

흔한지 4개 월여 아직 정신이로 인사

이웃관계

를 나눈적도 없는 처지여서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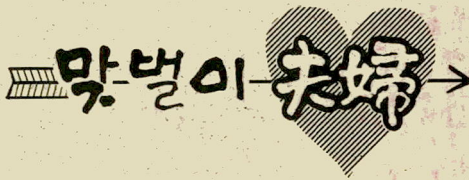
사만하고는 곧 돌아섰다. 하루종일 그 일이 부인

金씨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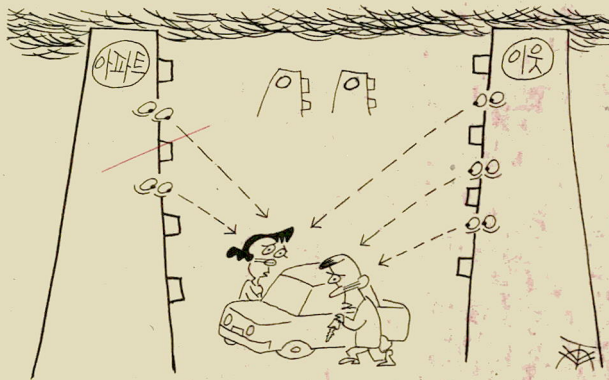
반상회 한번 나가보지 않은데다 주차문제로 다른

이웃과 가버린 시간을 벌이기도 했고 아마 교대

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계단 청소 수반같은 것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말단회사원 생활이 고달프기도 했지만



9



대로나누지 못했던 것. 그들은 나중에 자기부부 이웃아주머니들에게 바

러면 일을 봤었다. 결혼생활 5년째인 鄭의 패션디자이너 張錫允(40) 金基順(34)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아파트를 나섰다가 밤 9시에 돌아왔다. 일하는 재미에 아지 아이를 갖지 않아 늦은밤 시간 이외에는 집에 사람이 없었다.

반상회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한다. 반상회를 참별금(대개 1회당 1천원)은 아예 「세금」으로 생각한다. 통장아주머니도 이집에 무슨 고지서나 통지를 전달하려면 늦은 밤시간에 온다.

그런 이웃의 수고에 보답하고 최소한 이웃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張씨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주말에는 꼭 이웃을 초대해 다과를 대접하고 얘기를 나눈다.

남편이 회사원인 면세점 직원 南모씨(27)는 생후 15개월된 딸을 봐주기 위해 출근하다시피하는 시어머니가 낯시갈때만 집으로의 역할을 해줘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경우다. 그러나 대다수

밤늦게 歸家 인사도 못해... 눈총받기 일쑤

의 젊은 맞벌이 주부들은 친정어머니에게 더 심세를 많이 진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선생님을 찾아보는 일이나 주민등록증 갱신을 때는 일방적으로 일러주는 일도 어긋은 일에 속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 없어 아이들에게나 선생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전가나 화장을 가꾸는 것이 고상하면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도 큰 일이다.

어렵더라도 반상회에 꼭 참석하고 이웃과의 친교에 신경을 써 이해를 구해두면 의외로 집안팎의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이웃집에 대낮에 도둑이 들어 이사하는 양 살림을 다 틀어박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웃과의 왕래」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姜尙憲〉